

진학교사들과 함께하는 2014 대입 성공 프로젝트

과학 과목·범위 파악이 핵심 포인트 연대·고대·성균관대 등 선택형 확대

⑩ 논술출제 경향과 대책-자연계

올해 수시 자연계 논술의 핵심 포인트는 대학별로 과학논술의 출제 과목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과학논술에서 어느 과목이 출제되고, 과목별 출제인지 통합형인지, 작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

◇논술 출제 형식과 경향=수학과 과학이 결합된 통합 교과형은 건국대·중앙대에서 출제한다. 수확만 출제하는 곳은 한양대·서강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홍익대·아주대(일반전형) 등이다. 대다수 대학은 수학과 과학을 분리, 독립적인 형태로 출제한다.

수학문제의 유형은 논증형과 풀이형으로 나뉜다. 상위권 대학은 미적분과 기하배타를 선호하고, 중위권은 미적분과 고등수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한다.

특히 연세대 과학논술은 올해 기존 통합형 논술에서 과학과 4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는 선택형으로 바뀌었다. 성균관대·건국대·중앙대·경희대의 경우 지구과학 논술은 실시하지 않는다.

논술 출제 경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교과과정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고,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별로 과학 선택과목이 2과목으로 축소된 상황에 맞춰 과목 선택형 과학논술을 확대하고 있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건국대 그리고 구술면접으로 진행되는 서울대가 과목 선택형으로 진행한다. 과학 선택과목을 제한하는 학교도 있다.

◇논술 준비 대책=논술 문제가 교육과정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정돈된 답안에 대한 연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그러므로 최근 기출문제와 2014년도 모의논술을 분석하고 연습해야 한다. 매주 일정 시간을 학습하고, 적어도 한 개의 완벽한 답안지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마무리 학습법이다.

▲수리논술-무엇을 평가하려는 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그 방향에 맞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각 대학 평가자료로 바라본 수리논술의 접근 방법은 ①개념과 원리의 이해·분석·구성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②교과과정 내의 기본개념을 충실하게 학습하고 이를 통해 접근한다. ③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구

기출 문제·모의 논술 분석

완벽한 답안 작성 연습해야

수리논술 답안 유의점은

상황 설명·수학적 표현 중요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④제시문과 논제 내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고 논제간의 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한다.

수리논술 답안을 작성하는데 유의사항은 ①수학적 표현이 엄밀해야 한다. ②상황을 적절히 설명하는 수식화나 도표·모형·그림 등을 그려 설명하는 것도 적절한 답안 작성방법이다. ③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④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⑤엄밀한 논리의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⑥정확한 개념을 근거로 출제자의 요구에 맞는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또 각 대학 체점기준과 체점총평을 기준으로 삼아 정교하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수리논술의 경우 문제를 잘 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점이 적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논술-수능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도록 정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논술 역시 수능과의 연관성이 수박에 없다.

수능과 논술의 차이는 한 가지다. 수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으로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정답을 찾아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논술은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묻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시험방식이다.

그러므로 논술 준비의 첫 단계는 수능 준비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현상에 대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논술은 글로 자신의 답변을 대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원하는 답변에 가장 가까운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에 대해 답안을 작성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첨삭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학별 논술 출제 특징 분석 =▲연세대 기준과 동일하게 수리논술 1문항(60점), 과학논술 1문항(40점)이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150분이다. 올해 자연계열 논술 과학문제는 기존 통합형 논술에서 과학과 4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과학II 수준까지 출제될 수 있으며, 과학II 수준의 난해한 개념은 제시문에서 기본개념을 설명해야 한다.

▲고려대 연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우나 문제해결에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다.(연세대-수리문항을 90분, 고려대-60분) 과학논술은 지원학생들의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논술에 참여하는 선택형 시험으로 진행된다. 문제 수준은 거의 과학II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화여대 기준에는 수리논술 3문항, 과학논술 3문항(물리·화학·생물)이 출제되었는데, 2013학년도에는 수리논술만 3문항 출제와 과학논술에 대한 부담 및 과학 선택 과목에 의한 유·불리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13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논술고사는 시간이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었고, 수리논술만 출제되다 보니 예년의 수리논술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

(시민기자 한철민·송덕교 교사·한들대입시지원연구회장)

전공 다른 학생들 책으로 소통한다

전남대 독서클럽 운영... 교수 1명·학생 4~5명 팀 이뤄 생각 공유

전남대학교가 독서클럽 운영으로 도서 문화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택을 쌓겠다는 일념 하에 학점, 과제,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 각종 공인자격시험에 치여 사는 대학생들

전남대는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독서클럽 21팀(교수 21명, 학생 99명)을 선정했다. 독서클럽은 교수 1명과

학부생 4~5명이 한팀을 이뤄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4권 이상의 책을 읽고 최소 5회 이상 모여 독서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운영 규칙이다. 책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은 독서클럽에 책과 소문을 유도하고 있다.

전남대는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독서클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독서클럽들이 읽고 싶은 책으로 꼽

은 1위는 '유배지에서 온 편지'로, 전남대가 전개하고 있는 범시민독서운동 '광주독에서 선정한 책이다. 이밖에도 '왜 도덕인가(Why Morality)', '침묵의 미래', '사회 속의 과학' 등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선정해 사고의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독서클럽 '남남북녀(남남 book 典)' 팀장을 맡고 있는 정필기(경영학부 4학년)씨는 "각각 다른 전공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책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 자체가 매우 값진 경험이며, 지적이고 건강한 삶을 가꾸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마재숙 도서관장(의학과 교수)도 "미래는 지금 책을 읽는 젊은이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학생들이 다방면의 도서를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확장·심화시키고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캠퍼스 소식

동신대 '아이들의 이상형' 전국 동아리 대회 석권

교육부 지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로봇기반교육지원단이 개최한 제2기 전국 R-러닝 대학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동아리인 '아이들의 이상형'(지도교수 임수진)이 단체전 2개 부문 최우수상, 개인전 대상, 최우수상 등 전 부문에서 상을 휩쓸었다.

R-러닝은 2010년부터 교육부가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로봇에 기반한 교육을 의미한다. 정부는 유아교육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지능형 로봇을 전국 유치원에 보급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로봇기반교육지원단을 통해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R-러닝을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동신대 '아이들의 이상형' 팀은 단체전 운영성과 부



문에서 최우수상, 모의수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개인전에서도 기능·콘텐츠 활용 숙련도 부문 대상(안연재)과 우수상(정영은·배민정)을, 골든벨 부문 최우수상(이초희)과

우수상(정수진), 장려상(김소연·이수미·박인애)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실적을 거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출판부 '한국사회복지 개척 인물' 출간

한국의 사회복지 개척한 인물 15인의 삶과 활동을 정리한 '한국 사회복지 개척한 인물'(광주대출판부)이 최근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사회복지 개척한 인물'은 한국의 사회복지의 뿌리를 찾는 의미 있는 책으로 이용광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주도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생이 합심해 지난 100년간 한국

사회복지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집중 조명했다.

이 책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시각에서 이 땅에 복지의 씨앗을 뿌리고 실천한 15인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보편적 복지'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1904년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현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서 선교와 복지의 씨앗을 뿌린 유진벨(배유지)을 비롯, 의료를 통해 복지를 실천한 윌슨(우윤순), 간호와 복지의 선구자 웨빙(서서평), 교육과 복지를 개척한 루트(유화래), 농촌 개발의 선

구자 어버슨, 의료(정진보간)복지를 실천한 헨리 선교사 등이 초기 사회복지 개척한 선구자들이다.

이들 선교사와 협력해 당시 우리 사회의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자와 결핵환자, 부랑민, 전쟁고아를 위한 복지를 실천한 최홍중·손양원·강순명·이현필·김준호·이준목·박순이 등과 여성운동과 교육을 실천한 김필래, 조아라 등이 그 주인공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자연과학고 이병주 군 영농학생 전진대회 장관상

광주자연과학고 이병주(3년)군이 최근 강원도에서 열린 '제42차 한국영농학생연합회(FFK·Future Farmers of Korea) 전진대회'에서 화훼장식부문 금메달(교육부장관상)을 차지했다.

또 이 학교 김성식(2년)군은 식물자원부문을, 김식·김영준(2년)군은 동물자원부문을, 황선

주(3년)·김지원(2년) 학생은 식품가공부문에서 각각 동메달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화훼장식, 농기계 정비, 식물자원, 동물자원, 경영과제, 예술제 등 4분야 16종목에 전국 농업계열 74개교 843명이 참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정상 “급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 감정가/시세 - 23억원
- ▶ 임 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 대 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매매가 - 22억원
- ▶ 수 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문의(주인직매) 010-3605-5000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등기 또는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합니다.

투자금은 최소 1억원 이상이고 투자기간은 1년 정도이고 수익률은 년 20% 이상입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